

‘아는 와이프’, ‘김비서...’ 인기 있다...기대되는 이유



‘아는 와이프’가 시청자를 설레게 할 차별화된 if 로맨스의 탄생을 예고했다. 오는 8월 1일 첫 방송되는 tvN 새 수목드라마 ‘아는 와이프’(연출 이상엽, 극본 양희승, 제작 스튜디오

래곤 초록박스미디어)를 향한 반응이 심상치 않다. 티저 포스터와 영상 공개만으로 도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며 각종 포털 사이트, SNS에서 폭발적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아는 와이프’는 한 번의 선택으로 달라진 현재를 살게 된 운명적 러브스토리를 그린 if 로맨스 공감을 저격하는 현실 위에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봤을 상상력을 더해 ‘공감’과 ‘로망’ 모두 충족시키는 차원

시청자 설레게 할 ‘if 로맨스’ 탄생 예고 공감·로망 충족시키는 차원 다른 로맨스

이 다른 로맨스로 시청자를 찾아갈 예정이다. tvN은 ‘또 오해영’, ‘오 나의 귀신님’ 등 참신하고 공감을 자아내는 취향저격 로맨틱 코미디를 꾸준히 선보여 왔다. 쏟아지는 장르물의 홍수 속 로맨틱 코미디에 대한 시청자들의 갈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최근 ‘김비서가 왜 그럴까’가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바통을 이어받은 ‘아는 와이프’의 가세는 기대감에 불을 지폈다. 무엇보다 ‘아는 와이프’에 기대가 쏠리는 이유는 배우, 연출, 극본까지 ‘로코’ 드립팁의 퍼펙트한 조합에 있다. 장르를 넘나들며 변화무쌍한 연기로 시청자의 무한 지지를 얻고 있는 지성과 3년 만에 안방극장에 컴백하는 모태 러블리 여신 한지민의 만남은 모두가 꿈꿔왔던 꿈의 조합이다. 지성과 한지민은 기대에 보

답하듯 티저 영상과 포스터를 통해 달달한 로맨틱 케미와 시너지를 발산하며 설렘을 예열했다. 이상엽 감독은 “지성과 한지민은 작은 눈빛하나, 숨소리 하나 흘려보내지 않고 세밀한 감정의 신을 만들어낸다. 놀라운 호흡으로 생활밀착형 부부 생활을 연기하고 있다”고 극찬했다. 여기에 ‘쇼킹왕 루이’로 감각적인 연출력을 보여준 이상엽 감독과 ‘고교처세왕’, ‘오 나의 귀신님’, ‘역도 오정 김복주’까지 사랑스럽고 따뜻한 작품을 선보인 양희승 작가의 조합은 로코 마니아들을 설레게 한다. 현실감을 불어넣어 공감을 자극해온 ‘로코 장인’ 이상엽 감독과 양희승 작가가 어떤 이야기로 시청자를 찾아올지 호기심을 증폭한다. 이상엽 감독은 “‘아는 와이프’는 삶에 지친 평범한 사람들의 달콤 씁쓸한 생활밀착형 성장 로맨스”라고

규정하며 “일상에 벗어난 엉뚱한 상상을 유쾌하고 현실감 있게 그려내려고 한다. 예상하지 못했던 가슴 설레는 로맨스가 한여름 밤의 꿈처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운명적인 사랑 따위 믿지 않게 된 팍팍한 현실에서 우리가 잊어버린 사랑의 수많은 얼굴들을 다시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양희승 작가는 “‘아는 와이프’는 ‘관계’와 ‘인연’에 관한 이야기”라고 정의하며 “사람은 누구나 가장 가까이 있는 관계에 소홀하고 놓친 인연에 미련을 갖는다. 누구나 한번쯤 꿈꿔왔을 로망의 결과에 대한 유년기 해석이 오랜 연인, 부부,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해 기대감을 높였다. 이제껏 본 적 없는 차별화된 로맨틱 코미디의 탄생을 예고하는 생애 단 한번의 if 로맨스 ‘아는 와이프’는 ‘김비서가 왜 그럴까’ 후속으로 오는 8월 1일 밤 9시 30분 tvN을 통해 첫 방송된다.

‘인크레더블2’, 마블 부럽지않은 픽사 1위



영화는 짝이 통했다는 것이다. 2탄은 엄마 헬렌이 국민 히어로 일라스티컬로 활약하게 되고 아빠 밥은 삼남매와 고군분투하며 육아 히어로로 거듭난다. 일과 가정 양립과 저출산 대책으로 남성의 육아유지 활성화를 독려하는 현실과 맞닿는다. 2탄은 1탄의 마지막에 등장했던 정체불명의 악당이 활개를 치면서 슈퍼파워 가족이 다시 한 번 분출 놀라움 만한 능력을 발휘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1편(2004) 이후 14년 만에 속편이 개봉한 건데, 슈퍼히어로 가족의 화려한 부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4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다며 ‘픽사 최고의 속편’이라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영화가 개봉된 이후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캐릭터가 바로 슈퍼파워 가족의 막내 잭잭이다. ‘인크레더블2’에서 다양하고 강력한 슈퍼파워로 막강한 존재감과 과시하며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관객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음악을 구하기 위해 슈퍼 히어로 가족의 집 마당을 찾은 너구리와외한관 승부는 잭잭의 제어 불가능한 능력들을 즐길 수 있는 명장면으로 손꼽히며 많은 이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아빠를 ‘벤봉’에 빼뜨리는 능력으로 행동도 표정도 모두 다른 잭잭을 한 명 한 명 살펴보는 것 또한 관람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인크레더블2’는 각종 예매 사이트에서 압도적 수치로 예매율 1위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네이버 관람객 평점 9.33, CGV 골든 예그 지수 98%의 높은 평점을 유지하고 있어 흥행성과 작품성 모두 인정받으며 앞으로의 흥행 기록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다.

‘무도’ 없는 토요일 위기 맞은 MBC, ‘서울메이트’에 자리 내주나



‘무한도전’이 사라진 토요일 예능, KBS와 SBS는 건재했고 MBC는 추락했다. ‘무한도전’ 후속으로 방송 중인 ‘뜻밖의 Q’가 2%대 시청률에 머물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2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1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뜻밖의 Q’ 시청률은 2.6%와 2.7%(전국기준)를 기록했다. 전작인 ‘무한도전’은 마지막 563회에서 11.1%, 562회에서 12.8%를 기록한 바 있다. 비단 시청률 뿐만 아니라 어떤 예능 콘텐츠보다 높은 화제성과 파급력을 자랑했다. 지난 3월 ‘무한도전’이 떠난 후 방송되고 있는 ‘뜻밖의 Q’는 시청

자와 함께 만든 특별한 음악퀴즈를 표방하며 시청자들이 직접 만든 기성곡의 퀴즈 출제 위원들이 등장하고 있다. 매회 화제를 모을만한 인기 아이돌과 유명 연예인이 출연하지만 시청률과 화제성 모두 제자리 걸음 중이다. 4%대로 시작한 시청률은 이제 2%대로 떨어졌다. 반면, KBS2 ‘블루의 명곡’(6.2%·8.2%)과 SBS ‘백년손님’(5.2%·8.1%)은 시청률 8%대를 기록하며 양강 구도를 이어가고 있다. 2011년부터 토요일 예능으로 선보인 ‘블루의 명곡’은 장수 음악 예능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백년손님’ 역시 지난 1월 토요일로 편성을 옮긴 후 기존 방송 시간대에 비해 일정부분 시청률 상승을 이끌어냈

다. ‘무한도전’의 종영으로 두 프로그램 모두 자연스럽게 상대적인 시청률 상승을 가져오는 모양새다. ‘뜻밖의 Q’는 하락 속 CJ ENM의 ‘서울메이트’와 경쟁에서도 밀리는 모양새다. 지난 21일 방송된 ‘서울메이트’의 전국 가구 시청률이 평균 2.6%, 최고 2.8%를 기록하며 케이블과 종편을 포함한 순위에서 동시간대 1위에 등극했다. (닐슨코리아 / 유료플랫폼 기준 / tvN, 올리브, 온스타일 채널 합산) 올리브 ‘서울메이트’는 홈세어링 문화를 바탕으로 호스트와 게스트의 특별한 2박 3일 간의 서울 여행을 담은 프로그램으로 주말 예능과 잘 어울린다는 의견을 받고 있다. 토요일 경쟁 속 MBC는 ‘뜻밖의 Q’로 ‘뜻밖의’ 위기를 맞이했다. 여전히 다른 지성과 콘텐츠는 강세인 가운데 ‘서울메이트’가 새로운 판에 끼어들 수 있지도 관심사다.

“혼자 아닌 팀”...‘짬내투어’ 초보 문세운 살린 동료들

초보 가이드에선 버거운 하루였지만, 그만큼 동료들의 마음도 느낄 수 있었다. 지난 21일 방송한 tvN ‘짬내투어’에는 첫 설계자로 나선 문세운의 고군분투가 펼쳐졌다. 이날 ‘짬내투어’에서 문세운은 처음 설계에 도전했다. 박나래에 이어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2일차 설계에 돌입한 것. 그는 자신의 친구 유민상이 좋아하는 쌀국수로 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문세운은 날씨, 40도에 육박하는 찌는 듯한 무더위는 금방 사람들을 지치고 예민하게 만들었다. 문세운은 사람들의 편견과 시선 때문에 택시 대신 20분 가까이 도

보로 걷는 것을 택했음을 솔직히 털어놨다. 무더운 날씨에 대기까지 필요한 상황. 게다가 문세운이 쌀국수를 주문하며 고수를 빼달라고 말하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탓에 정준영과 박재정은 처음에 당황하기도 했다. 10분에 하나씩 쏟아지는 문제에 문세운은 쌀국수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그런 문세운을 안쓰러워하며 다른 사람들이 열른 쌀국수를 먹으라고 하자, 문세운은 다른 이들이 불편해할까 자신의 쌀국수를 먹기 시작했다. 미처 다 먹지도 못한 이들을 데리고 문세운은 황급히 기차역으로 갔다. 빈년에 가는 기차 시

간을 맞추기 위해서다. 여유없이 달려간 기차는 나름대로 그 분위기가 있었으나 너무 시끄러웠다. 기차는 내내 건물 옆을 지나라 경적을 울렸고, 안에서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문세운과 다른 사람들의 의사소통이 잘 진행되지 않아 문세운은 자신의 임무양을 봐달라고 너스레를 떨 정도. 빈년에 도착해서는 택시를 빌렸다. 택시기사와 가격 흥정이 쉽지 않았다. 베트남 전통 모자를 사면 서도 마찬가지. 아쉽게도 준비한 팜푹투어는 배를 타는 것은 좋았지만 생각보다 등골에서 딱히 보이지 않아 아쉬움을 자아냈고, 계

다가 예상치 못한 팀까지 쥐어줬다. 문세운은 그야말로 ‘벤봉’의 연속. 초보 설계자인 그에게 이날 하루는 정말 근심의 연속이었다. 다음 코스는 등산으로 예견, 장도 연을 비롯한 출연진들이 표정을 굳히고 말았다. 다만 그가 버거운 때마다 박나래나 정준영 등이 슬며시 도와줬다. 박나래는 등산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파치를 비롯해 고수를 이르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물건 가져 흥정을 할 때 도왔다. 무엇보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다. 문세운은 유달리 운이 따라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가 보여준 베트남의 맛깔나는 쌀국수와 팜푹의 풍경은 충분히 아름답고 즐거웠다.

오늘의 순세 2018년 7월 23일 월요일 (음력 6월 11일)

<p>▶ 쥐 도둑을 맞으려면 개도 짖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빈틈 없고 확실한 성격이라도 방심하는 순간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 조심하라. 1, 3, 5월생 상대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언행을 함부로 하지 말라.</p>	<p>▶ 용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내태함을 물리쳐야 한다. 용맹전진해 몸을 단련하고, 지혜를 쌓아라. ㄷ, ㄱ, ㅎ 성씨 연상의 이성에게 유혹당하지 말아야 한다. 순간 실수하면 일생을 두고 후회한다. 5, 7, 9월생 동업자는 남서쪽에서 행운이 온다.</p>	<p>▶ 원숭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진심이다. 돈으로 마음을 움직인다면 위선이고 최악이다.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낫다. 4, 8, 12월생 중동적 인 결정은 후회할 일을 만든다.</p>
<p>▶ 새끼 예전 것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서는 것은 무모한 행동이다. 뒤끝은 깨끗해야 뒷말이 없는 법이다. ㄷ, ㅁ, ㅍ 성씨 자존감을 회복하라. 애정에 집착하는 것은 금물이다. 새로운 직업을 찾되 미련을 두지 말라.</p>	<p>▶ 돼지 무슨 일든 성급하게 재촉하면 실수할 수 있다. ㅅ, ㅈ, ㅎ 성씨 화약을 지고 불로 들어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침착함과 여유로움이 필수다. 이득 없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1989년 1, 6, 10월생 애정은 겨울바람이 불겠다.</p>	<p>▶ 닭 하늘이 있듯 앓을 볼 수 없는 형세다. 몸과 마음이 지쳐 만사가 귀찮다. 그래도 의욕마저 잃는다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 2, 9, 10월생 내가 설 땅은 내가 찾아야 한다. 애정은 너무 오래 눈치만 보면 상대를 떠나보내고 만다.</p>
<p>▶ 호랑이 좋은 소리 없이 귀중한 옷을 구멍을 낸다. 1, 2, 5월생은 자신은 물론 회사의 재정, 인간관계, 사물 그 밖의 모든 것을 점검하라. ㄱ, ㅌ, ㅍ 성씨는 사랑하기에 포기한다고 하지 말라. 내 사랑은 내가 획득해야 한다.</p>	<p>▶ 말 노동은 삶의 보물이다.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끈기와 인내로 이겨나가라. 삶을 개척할 주인공은 본인이다. ㄱ, ㅈ, ㅍ 성씨 사업 변동으로 생각지도 않던 사람과 결합할 운이다. 심사숙고해 결정하라.</p>	<p>▶ 개 도를 닦듯 매사 임하라. 설부른 행동은 자제하고, 남의 것을 탐내거나 욕심부리지 말라. 욕심이 크면 걱정이 태산처럼 쌓인다. 2, 3, 8월생은 신경 쓰이는 일이 없겠으니 언행을 조심하라.</p>
<p>▶ 토끼 한평생 ‘안인데, 안인데’라면서 끌려가는 삶을 살지 말라. 불행한 인생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인생만큼은 자주적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 1975년생 ㄷ, ㅁ, ㅎ 성씨중 음식업, 도매업 종사자는 사업이 번창한다.</p>	<p>▶ 양 재고 쌓인 창고만 봐도 숨이 막힌다. 실용성과 튼튼함도 중요하지만, 디자인이 좀 더 독창적이라면 성공하겠다. 돈 문제는 말, 토끼, 닭에게 도움을 청하면 된다. 1, 3, 4월생 분발하라. 동쪽이 길하다.</p>	<p>▶ 돼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심신을 다스리라. 불평불만이 과하면 역효과를 내기 십상이다. 반성하는 자세와 침착함이 필요하다. 현실에 충실한 것이 최선이다. 5, 7, 11월생 지속하는 숭박직 같은 사랑은 마음으로 다스리라. ㄱ, ㅌ, ㅎ 성씨 변동하면 길하다.</p>